

순천시, 신대천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 연말 피날레 개최

새롭게 태어난 신대천 따라 걷는, 겨울밤 도심 속 문화광장 축제!

순천시가 오는 20일 신대천과 인근 공영주차장(신대리 1996) 일원에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젊은이들의 해방구)' 피날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말의 광장'은 일상 속 도심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예술·휴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된 순천시 대표 생활문화 축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주말의 광장'으로, '신대천 열림식'과 연계한 신대지구 최초의 대규모 거리형 축제로 마련됐다.

'신대천 열림식'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물길을 다시 열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행사로, 이번 열림식을 통해 신대천은 단순한 하천을 넘어 시민이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전수문

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주말의 광장 상징인 '잔디로드'는 이번 피날레에서도 신대천 공영주차장 앞 거리에 조성된다. 평범한 거리를 초록빛 습지로 탈바꿈해, 차 없는 거리에서 여유롭고 안전한 보행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의 가치를 전달한다.

신대지구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 콘텐츠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캐리커처, 군밤 만들기 체험, 콘텐츠 마켓, 오락실 느낌의 콘텐츠 놀이터,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 부스로 꾸며진다.

특히, 순천시 캐릭터인 '루미퐁이'와 인기 캐릭터 '벨리곰'의 대형 조형물과 함께 연말 분위기를 더할 수 있도록 신대천을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연출해 따뜻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순천시 홍보대사 나영의 무대를 시작으로, 인기 밴드 루시와 테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순천 버스킹 경연대회 우승자의 특별 무대, 국가대표 비보잉 크루 '퓨전엠씨'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바블, 마술 등 거리공연과 DJ의 엔딩쇼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도심에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축

신대천에서 펼쳐지는
주말의 광장
in 신대지구

12.20 (토)
12:00 ~ 21:00

주말의 광장

12월 20일 (토) 12:00 ~ 21:00

주말의 광장

12월 20일 (토) 12:00 ~ 21:00

주말의 광장

12월 20일 (토) 12:00 ~ 21:00



강진군 한우산업 청년 농업인, 선진지 견학 실시

미래 축산업 주역 위한 현장중심 교육 강화

한우산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강진군 청년 한우 농업인들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경남·경북 지역의 한우산업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한우산업의 최신 기술과 우수 경영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축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견학 대상은 강진군에서 한우 사육을 시작하거나 계획중인 청년 농업인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한우 사육 및 유통 분야에서 선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견학 일정은 생산 현장부터 출하,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형태로 구성돼 실질적인 현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운영 시스템, 송아지 질병 예방 및 체계별 건강관리 사례, 사료 효율

극대화를 위한 사양 관리 기법 등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최신 축산 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한우 개량과 혈통 관리의 중요성, 고급육 생산을 위한 브랜드화 전략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은 한우산업을 지역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우 사육, 운반, 육가공, 유통, 조사료 생산 등 한우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 청년 한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선진지 견학 등 한우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의 노하우를 체득하고, 강진 한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연말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연말 선물 준비를 돕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곡성물에서 크리스마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곡성물에 입점한 119개 업체 모두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쌀, 한우, 가공식품, 간편식 등 다양한 농·특산물 611개 품목 전 상품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연말 장보기와 선물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곡성물 회원에게는 1인당 3매가

곡성물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20% 특별 할인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 전 품목 20% 할인

지 할인쿠폰이 지급되며, 쿠폰 1매당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기획전 기간에 시향가의 쌀막걸리 구매 시 유기농 햅쌀을 추가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시향가 쌀막걸리는 곡성에서 재배한 쌀로 빚어 곡성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구매 고액 100명에게 곡성 유기농 햅쌀을 추가

로 증정해 곡성 쌀의 품질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곡성물 관계자는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전은 한 해 동안 곡성물을 이용해 주신 소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

산타의 선물을 곡성물에서
올라봐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 품목 20% 할인

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유통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완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조직 운영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직 관리 체계·혁신 능력,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17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조직 운영 사례 우수' 분야에서 전국 7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특히 전남 지자체에서

완도군, 조직 운영 평가 전남 유일 '우수 자치단체' 선정

조직 관리 체계·혁신 등 '사례 우수 지자체'에 이름 올려

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군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사 업무 통합·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감소 기능을 지속 발

굴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및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등 행정 운영의 혁신을 도모했다.

특히 인구, 일자리, 재난 관리 등 군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사례로 의미가 크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조직 운영은 일하는 방식을 정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 한 분 한 분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조직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나주시, 출산축하꾸러미·다동이 육아용품 지원 확대

첫째아는 출산축하꾸러미, 둘째아부터는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출산축하꾸러미 지원과 더불어 둘째아이부터 육아용품 구입비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도 사업인 다동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이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준으로 나주시 출생 순위 비율 가운데 약 32퍼센트를 차지하는 둘째아 가정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동이 육아용품 구입비는 2024년 1

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이 태어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이며 선불카드도 지급하고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필수 육아 용품을 도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모든 출생 가정에 신생아 필수용품을 제공하는 '행복담은 출산 축하꾸러미 배달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출생아 1인당 약 10만 원 상당의 젖병 세트, 신생아 속싸개, 방수요 등 필요한 품목을 가정으로 배송하며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왔다.

나주/이명열 기자

구례군, 전라남도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 구례군은 전라남도 주관 '적극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 평가, 도민평가, 발표심사를 종합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으며, 구례군은 '365일 구례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불빛, 공공심야약국' 사례로

최우수상을, '지리산 산골 마을에 문화예술 꿈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력사업 사례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례군 공공심야약국은 전남 최초로 지자체 주도형 요일제 운영 모델을 확립해 365일 공백 없는 공

공의료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력사업은 한예종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구례 문화예술 공연, 한예종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

역 청소년과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에 앞장선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과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례/한경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수만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갈 같은 **알고도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우주와**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날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새삼처럼. 한드서. 기억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웃어주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미래의 현재가 **가난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겠**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한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더**

좋은 거라면 **더**

언제나 우연치 **않**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우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